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0년 1월호



- 03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활용하세요
- 04 소공동체 기도
소공동체 살림살이
- 05 복음나누기 7단계
- 06 주일복음묵상
- 11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터에서 놀이하는 아이들의 비유
- 14 가정기도 | '해야 돼!'
- 17 소공동체 배우기 | 소공동체란 무엇인가요?
- 18 함께하는 소공동체
내 시간과 가진 것을 나누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 20 순교자를 찾아서 | 조숙(趙淑·베드로)
- 24 소공동체의 의미

이렇게 활용하세요

- :: **소공동체 기도** _ 소공동체 모임 시작기도 때에 함께 기도해 주세요.
- :: **소공동체 살림살이** _ 소공동체 모임에서 나온 활동 예정사항들을 기록하고, 활동한 내용들을 적어두시면 모임 시 나누기를 하실 때에 도움이 됩니다.
- :: **복음나누기 7단계** _ 복음나누기 7단계를 하실 때 참고하세요.
- :: **복음묵상** _ 복음나누기를 하시기 전 미리 읽어보시면 나누기에 도움이 됩니다.
- ::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_ 복음나누기 7단계 외에 이 방법으로 복음나누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가정기도** _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모여 함께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 :: **함께하는 소공동체** _ 본당 소공동체 소개를 통하여 다른 본당 교우들의 소공동체 모임을 들여다보고, 서로 교류할 수 있습니다.
- :: **소공동체 배우기** _ 소공동체에 관한 내용들을 신습니다. 모임 시 함께 읽어보시면 소공동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 **순교자를 찾아서** _ 교구장님께서서는 새로운 사목교서에서 ‘순교 영성으로 세상의 복음화를!’이룰 수 있기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모임 시 다함께 읽고, 순교자들의 삶을 되새겨보며, 일상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순교들에 대해 나누시면 좋습니다.

소공동체 기도

사랑의 근원이시며 친교의 모범이신 삼위일체의 하느님!
저희들은 초대 교회 신자들의 모범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실천하는
소공동체 운동을 활발히 실천하여
친교와 봉사와 증거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오니
성령의 은사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복음 선포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소공동체 살림살이

주간	활동예정사항	나눔사항
주님공현대축일		
주님세례축일		
연중 제2주간		
연중 제3주간		
연중 제4주간		

복음나누기 7단계

1. 시작성가

2. 출석확인 및 인사 나누기

3. 복음나누기 7단계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모임에서 해야 할 활동에 대하여 토의한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 우리나라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4.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

주님의 밥값

영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가난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의 가장은 불구자인데다 배운 것도 없어 다리를 절며 엿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상하게도 매월 말에 교무금으로, 날수가 31일이 있는 달에는 3,100원을, 30일이 있는 달에는 3,000원을, 28일이 있는 달에는 2,800원을 더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영세 이후 우리집 식구가 하나 늘었습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식구가 한사람 더 늘었으니 100원이라도 더 벌기 위해 힘껏 일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밥값을 하루 100원씩 따로 모아 두어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재물보다도, 자신의 욕망보다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더 소중히 여긴 소박하고도 겸손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공현이란 공적으로 드러내 보인다는 뜻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선량한 목동들에게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 아기 예수님은 이제 온 세상 만민들을 위한 분이심을 공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삼왕(동방박사)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아주 귀한 예물을 바침으로써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 뵙고 찾아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그분께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각자의 겸손한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아기 예수님이 세상의 주님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인 오늘 우리는 새롭고 기쁜 마음으로 한해를 맞이하며 올 한해 하느님께 봉헌하고 싶은 것들을 나누어 봅시다.

1월 10일 주님 세례 축일

루카 3,15-16.21-22

하느님의 자녀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을 바꾸어 놓는 여러 번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가장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은 사건이 있다면 바로 세례성사일 것입니다. 세례성사야 말로 우리 각자의 품위를 바로 <하느님의 자녀>로 올려주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례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신앙을 청합니다. 그 생명이란 참 하느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가지지 못했다면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구세주)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며, 내 삶의 중심 역시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성사를 받던 날의 눈물과 감격을 기억합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는 세례로 새롭게 태어나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나보다 하느님을 먼저 생각하고, 바로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랑스런 자녀가 되겠노라 겸손되이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때에 하늘에서 들려왔던 소리,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루카 3,22)라는 말씀은 우리들 모두에게 하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세례성사를 받은 우리들은 하느님과 사랑의 시선을 주고받으며 그분과 일치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순간들에 대해서 나누어 봅시다.

예수님의 첫사랑

하느님의 사랑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 역시 전혀 낯설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아기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모태를 통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 안에서 펼치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은 특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척이나 친환경적이고 친인간적인 형태로 우리 안에 함께 합니다.

구세주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첫사랑(첫 기적)은 혼인잔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인간적인 표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기적을 당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으시지만,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일상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이를 체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성경 안에서 특히 복음서 안에서 하느님의 기적이 가지는 본래의 뜻은 신기한 일, 기이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보다는 하느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디에 하느님의 뜻이 있는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서는 기적들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저 세상 먼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 주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카나 혼인 잔치에서의 기적이 바로 그러합니다.

예수께서는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물을 가지고 일상 안에서 필요하고 소중한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특히 혼인 잔치 집에서 포도주는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오늘 복음은 지극히 평범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풍요로움을 안겨주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기적)이 담겨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일상생활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작은 기적들을 나누어 봅시다.

1월 24일 연중 제3주일

루카 1, 1-4:4, 14-21

하느님 말씀의 힘

일본의 어느 과학자가 물의 결정체를 연구하였답니다. 유리병에 물을 넣고 '사랑'과 '감사'라는 글을 보여 주었더니 물은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육각형 결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에 비해 '망할 놈', '짜증나네', '죽여 버릴 거야'와 같이 상처를 주는 글을 보여 준 물은 하나같이 찌그러지고 흉한 모습의 결정체가 나타났습니다. 미약한 인간의 말이 이렇게 힘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느님의 말씀은 이에 비할 데 없이 더 큰 힘이 있을 것입니다.

때가 되자 '하느님 말씀'이 문자(文字)로만 머물지 않고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루카 1,18-19)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현존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하느님의 구원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 치유와 용서의 손길을 내밀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 복음을 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눈과 코가 되어 시대의 징표를 알아내어 복음 선포에 도움을 줍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누구도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는 역할만 다를 뿐,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말씀을 전하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모든 병든 마음이 치유되고, 세파에 지친 이들이 힘과 위로를 얻으며, 길 잃은 이들은 바른 길을 찾고, 죄와 죽음의 세력에 묶인 이들이 해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나누어 봅시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성경과 매일 거행되는 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마음을 열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 안에 오시는 주님과 일치하면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기꺼이 이웃에게 다가가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사람들은 이상한 현상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누가 이른바 사적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현혹되거나, 어디 성모상에서 피눈물이 흐른다고, 성체가 피와 살덩어리로 변했다는 소문을 듣고도 쫓아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자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자 적개심을 품고, 배척하며 심지어 죽이려고 까지 합니다. 그들은, 고향에서 자라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새로운 것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음의 문을 닫아걸고 예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린다면, 나자렛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무조건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된 예언자는 하느님의 새롭고도 어려운 요구를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예언자들이 그랬듯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연하게 당신의 길을 가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예언적 사명을 천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른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말씀을 선포하고 실천해야 할 예언의 직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깨어 있음의 비유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05번 '사랑의 아기 예수'를 부릅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주님, 부족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소서.
-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어 닫힌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소서.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노숙자



관심



김장 나누기



이웃에서 하느님을 만남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마태오 복음 11장 16절-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 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런 일로 드러났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날 한 예비신자가 십자성호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십자성호를 그었지요. 기도는 잘 못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밥을 먹는다는 것이 너무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비신자와 같은 사무실의 한 직원이 옆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리님! 저도 천주교 신자입니다. 대리님은 언제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 교리를 받고 있는 중이라 말을 하고 있는데, 다

른 여직원이 옆에 와서 하는 말이 “대리님, 저는 쉬는 교우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성호만으로도 직장 내 동료 중에 천주교 신자를 두 사람이나 알게 된 것이 너무 신기하고 반가웠던 그 예비신자는 하느님의 은총을 깨닫고 더욱더 교리에 열심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자

-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천주교 신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타토의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107번 “천사의 찬송”을 부릅시다.

‘해야 돼!’

가정에서 온 가족이 동이와 연필을 준비해서 모여 앉습니다.

가정기도를 시작하며

진행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중의 한 사람이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해 주세요.

말씀과 함께

진행자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10, 1-4, 22-24.

¹ 율법은 장차 일어날 좋은 것들의 그림자만 지니고 있을 뿐 바로 그 실체의 모습은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같은 제물로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이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²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예배하는 이들이 한 번 깨끗해진 다음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아 제물을 바치는 일도 중단되지 않았겠습니까? ³ 그러한 제물로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될 뿐입니다. 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²²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악에 물든 양심을 벗고 깨끗해졌으며,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말끔히 씻기어졌습니다. ²³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간직합니다. 약속해 주신 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²⁴ 서로 자극을 주어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진행자 이번엔 다 함께 소리 내어 다시 한 번 읽어요.

(다 읽은 후) 잠시 동안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나누기

- ① 성경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 ② 올 한 해 동안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돌아가면서 발표해 봅시다.
- ③ 올 한 해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돌아가면서 발표해 봅시다.

함께 생각하기

진행자 오늘의 주제는 ‘경인년(庚寅年)’을 맞이하며 서로의 마음가짐을 나누어보기 위한 ‘해야 돼!’입니다. 다음 내용을 함께 살펴봅시다.

뭐든지 ‘해야 돼!’ 라는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 많다. 이를테면 ‘공부해야 돼!’, ‘숙제해야 돼!’, ‘출근해야 돼!’, ‘야근해야 돼!’, ‘살림해야 돼!’,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직 의무에 의해서만 행동한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어떤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 최종 선택은 결국 나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말이다.

독일의 자기 관리 전문가 마르코 폰 뮌히하우젠 박사는 ‘해야 돼!’ 라는 말을 ‘할래!’ 라는 말로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감을 덜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좀 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 설 수 있게 된다.

- 신의진의 「현명한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먼저 선택한다」 참조

가정 기도

생각 나누기

- ① 나는 평소에 ‘해야 돼!’라는 표현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 ② 한명씩 돌아가면서 다음의 표현들을 ‘할래!’로 바꿔서 말해봅시다.
- ③ ‘해야 돼!’를 ‘할래!’로 바꿔서 말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공부해야 돼!’ ‘숙제해야 돼!’ ‘출근해야 돼!’ ‘야근해야 돼!’ ‘살림해야 돼!’
‘기도해야 돼!’ ‘양보해야 돼!’ ‘믿어야 돼!’ ‘미사가야 돼!’ ‘웃어야 돼!’
‘기다려야 돼!’ ‘행복해야 돼!’ ‘사과해야 돼!’ ‘약속해야 돼!’ ‘대화해야 돼!’
‘노력해야 돼!’ ‘정직해야 돼!’ ‘감사해야 돼!’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큰 꿈을 꾀야 돼!’

* 함께 실천해요!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할래!’, ‘서로를 위해 양보할래!’,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항상 웃을래!’, ‘가족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할래!’, ‘나의 잘못을 사과할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할래!’, ‘항상 주님께 감사할래!’, ‘내게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할래!’, ‘올 한해 더욱 사랑할래!’...

올 한해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보다 꼭 하고 싶은 일들로 풍성해 지는 1년 365일 8760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회의

진행자 가족회의 시간입니다. 가족이 함께 알아야 할 사항이나 의논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가족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평화의 인사

진행자 지금부터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방법은 온 가족이 돌아가며 포옹하고, 부모님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해 주세요.

가정기도를 마치며

진행자 다함께 손을 잡고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가정기도는 서울대교구에서 발행하는 「소공동체모임길잡이」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소공동체란 무엇인가요?

복음이 빛을 잃어 가는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은 공동체 보다는 개인을, 하느님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만족보다는 물질적인 것을 더 우선시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냉담율이 증가하게 되어 교회를 이탈하는 교우들이 많아졌고, 본당이 커짐에 따라 신자들끼리도 잘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중산층화로 가난한 이들을 우선시하던 초기 교회의 모습은 사라지고 소외된 이들에게 성당의 문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소공동체는 새롭게 제시된 복음화의 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내·외적인 위기들을 복음의 힘으로 바로 잡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우는 활동의 한 방법으로 소공동체가 제시되었습니다. 초기교회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빵을 나누며,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임을 가졌고, 가진 바를 한 형제처럼 나누어 썼습니다. 모진 교회의 박해를 견뎌내고, 2천 년이상 교회를 발전시켜온 원동력이 되었던 초대 교회 공동체의 친교적 삶이 오늘날 새로운 복음화의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소공동체입니다.

소공동체는 작은 교회, 함께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소공동체는 적은 수의 가정이나 인근 신자들이 모여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교회 공부와 인간적·교회적 문제에 대해 토론 하고, 공동 책임을 만들어 내는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소공동체에서 말하는 '소(小)'는 규모의 작음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이들(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등)을 우선적으로 공동체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소공동체는 둘이나 셋이 모인 공동체 안에 현존하시며,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서로 이웃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체험하고, 그 체험을 나누며, 나누는 것을 함께 실천하는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시간과 가진 것을 나누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이정숙 마리아나(덕산동성당, 지역부장)

저는 덕산성당 지역부를 맡고 있는 이정숙 마리아나입니다. 우리 지역은 7개구역 38개의 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소공동체 활동이 활발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역부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소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복음 나누기가 자리 잡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한 달에 한 구역씩 소공동체 모임에 참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지역차장, 구역장이 함께 소공동체를 방문하였습니다. 가끔씩 수녀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인원이 적다고 불평하지 않고, 모이는 대로 복음 나누기와 더불어 생활나누기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자분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성당에 다니면서도 저 분은 어디에 사는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알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그 이후로 성당에서 만나면 더 반갑게 인사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역장은 얼마 동안 담당 구역 내 소공동체 모임에 참석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차츰 7단계 복음나누기가 자리 잡게 되고 회의록 내용도 풍성해져서 회의록을 거의 매번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꼭 7단계가 잘 되지 않는 노인들이 많은 반은 7단계를 고집하지 않고 묵

주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읽고 생활나누기를 하는 반도 있었습니다. 또 노안으로 잘 보지 못하면서도 천천히 성경을 몇 구절씩 읽어 가는 반도 있었습니다. 반의 특성을 살려 그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소공동체 모임의 기반이 다져졌고 소공동체 모임원들은 매달 모이면서 성당에서 겪었던 신앙체험, 가정, 이웃 등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겪었던 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상 속에서도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달에 한 구역씩 소공동체를 방문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한들 잘 되겠나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를 통해 반장, 구역장, 지역장들이 자신이 맡은 반구역을 잘 돌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 활성화 된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 시간과 가진 것을 나누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구역장이 매달 소공동체에 참석하는 구역은 모임이 활성화 되어 가며 가난한 곳 힘들어 하는 곳도 돌보아 집니다. 부족하지만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목국에서는 소공동체 운영과 관련한 체험수기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활발하게 이끌어 가고 있는 소공동체나, 소공동체 활동으로 인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 다양한 사례를 보내어 주세요.

문의: 055-249-7021~3

메일: mssamok@hanmail.net

우편: (631-860) 경남 마산시 오동동 107-23번지 천주교마산교구청 사목국

조숙(趙淑·베드로)

- 두 번째 동정부부 -

김길수·사도요한(전 대구가톨릭대학 교수)

한국 초대 교회의 창설 공로자이시던 권일신 프란치스코 사베리오의 딸 데레사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었다. 그리고 신해박해 때 아버지를, 신유박해 때는 오빠마저 잃고 집안은 파탄에 이르렀다. 그녀는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데만 전념하여 어떤 역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데레사의 깊은 마음속에 동정을 지켜 주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조선사회에는 그의 뜻을 이룰 방법이 없었다. 이웃의 집요한 권유와 회의적 눈길을 피하기 위해 내키지 않는 혼인에 동의하면서도 내심 동정애의 열망을 버리지 못해 천주교 신자라면 결혼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래서 맞이하게 된 남편이 냉담 중인 조숙(趙淑, 1787~1819) 베드로였다. 데레사는 비록 냉담자라도 외교인 보다는 나을 것으로 생각했다.

조숙의 본명은 '명수'로 숙은 그의 관명이다. 그는 경기도 양근(현 양평)고을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성품이 올발랐고 부모님들은 천주교 신자였으며 1830년 오랜 귀양살이 하는 중 선종한 조동섬 유스티노(성 정하상을 가르친 적이 있었다.)도 그의 친척이었다. 1801년 신유박해

때에 아직 어렸던 조숙은 양친과 함께 강원도에 살고 있는 외가로 피난 가서 그곳에서 장성하며 훌륭한 재능을 보이고 친절하며 침착한 성품으로 나이보다 훨씬 젊었다는 평판을 받았다. 그러나 종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우들과 접촉할 기회도 없어 박해를 두려워하며 냉담생활을 하고 있었다.

조숙은 권 데레사와 혼인하며 냉담을 풀고 가족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 신앙생활에 전념하였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이웃을 도우고 지난날을 뉘우치며 눈물로 회개하고 특히 냉담자를 보며 마음 아파하면서 정성을 다해 회두하게 하였다. 그의 가르침은 설득력이 있어 듣는 이들을 감동하게 하였는데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그의 말을 열심히 들었다. 특히 그는 당시 교회의 뛰어난 지도자 성 정하상, 성 조신철, 성 유진길 등이 벌이던 사제 영입운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였다. 그 중에서도 성 정하상 바오로가 사제를 모셔오기 위한 준비로 북경을 다녀 올 때마다 모든 준비를 도맡아 하였다. 그때마다 역경과 고통이 엄청났지만 신앙의 힘으로 견디었다.

권 데레사가 어려운 중에서도 신자여야 한다 했으나 신자를 만나지 못하고 냉담 중에 있던 조숙과 혼인하기로 하면서 냉담자라도 외교인보다는 나으리라 생각하고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보려 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의 동정생활에의 동경과 의지를 밝히고 남편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글을 적어 첫날밤에 남편 앞에 내 놓았다. 조숙은 권 데레사의 아름답고 고결한 원의와 굳은 의지를 느끼며 크게 감복하고 냉담 중에 있는 자신을 뉘우치며 부인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들은 바로 이 누갈다 동정부부의 뒤를 잇는 우리나라 두 번째 동정부부가 된다. 그리고 신앙인으로 귀감이 되는 온갖 성덕을 쌓아 주위를 감격하게 하였다. 그들 또한 생활 중에 동정을 지켜 순결한 삶을 사는 데에 힘든 유혹과 시련을 겪었다. 그럴 때마다 권 데레사는 조숙의 마음을 초심으로 돌아가게 이끌었다. 데레사의 눈물겨운 노력은 형벌 중에 약해진 조숙을 격려하기까지에 이르렀다.

그러던 1817년 3월 조숙은 또 정하상이 북경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 비밀리에 서책과 제구를 받아들일 계획으로 있었는데 조숙에게 배우고 있던 예비신자의 몸에서 축일표가 발각되고 그의 밀고로 체포당해 약속을 못 지킨 채 포청으로 끌려갔다. 이때 권 데레사는 남편과 떨어져 위험한 처지에 남편을 외롭게 내버려두지 않으려고 남편을 따라 함께 감옥으로 갔다.

이때 성 정하상은 조숙과 약속을 못 지켜 오히려 위기를 모면했는데 그 까닭이 평양을 떠나오던 중에 말의 발에 병이 들어 하루를 늦추었기 때문이었다. 하루 늦게 온 정하상은 이 놀랍고 슬픈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자신이 위기를 모면한 것이 말의 발병 탓인 것을 생각하며 ‘한날 미물의 발병까지도 주님 섭리의 뜻이 있구나.’하고 묵상하였다.

조숙과 권 데레사 부부는 천주교 서적 있는 곳과 교우들의 이름을 대라는 위협을 받았다. 조숙은 당당하였다. 교회에 해를 끼칠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관원은 데레사를 달랬다. 그들은 데레사의 굳은 신심을 몰랐던 것이다. 웃으

며 상냥하게 달래는 그들에게 “천주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누가 부모를 배반하라 합니까? 누구든 부모를 배반하면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만인의 아버지이신 주님을 배반하지는 못합니다.” 혹독한 형벌이 내려지고 동정부부는 영웅적 인내로 참아내며 오히려 괴로움을 기쁨으로 삼아 얼굴에 평화를 잃지 않았다. 옥에 갇힌 지 27개월이 되던 1819년 5월 부부는 함께 참수로 순교하셨다. 이순이와 유중철 부부가 동정순교한지 18년 만에 이렇게 또 한 쌍의 동정부부는 하늘나라로 향했다.

소공동체의 의미

소공동체의 소(small)는
작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작은 이들을 공동체의 중심에 두고
하느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아나빔(anawim)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소공동체의 소(small)는
작은 모임이 중심이 되는 말입니다.
작은 규모이기에 모든 이가 주체가 되는 공간
서로를 느끼며 하나의 지체가 되어 살아 숨쉬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작은 생명체를 말합니다.

소공동체의 소(small)는
스스로 작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낮아지고 작아져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
빈 마음의 사람들이 일구어 가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소공동체의 소(small)는
아주 작은 겨자씨를 가리킵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를 품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들의 만남
세상에 하늘 나라를 여는 교회의 미래를 말합니다.

소공동체는
나를 변화시키는 내 안의 작은 나입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 안의 작은 세상입니다.
이웃과 이웃이 만나 온 누리가 하나 되는
우주 속의 작은 우주입니다.